



[해설] 사내벤처 C랩 찾은 이재용 부회장 '뉴 삼성' 광폭행보 03



Economy

코스피	2187.93 (+35.52)	코스닥	759.90 (+7.72)
금리(미국 3년)	0.854 (+0.016)	환율(원/달러)	1195.80 (-2.80) (6일)

<CJ ENM>

<딜라이브>

콘텐츠 vs 플랫폼 '힘겨루기' 200만 가입자 블랙아웃 위기

CJ ENM "사용료 더 안내면 송출중단"

딜라이브 "매출 감소... 무리한 인상"



서울 마포구 CJ ENM 사옥. /뉴스1

'콘텐츠'나 '플랫폼'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시장 진출, 인터넷TV(IPTV) 등의 성장으로 유료방송 업계가 들쭉이면서 그간 쌓아온 오래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NM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딜라이브 간 수수료 갈등이 대표적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 같은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시청자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다.

◆CJENM과 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두고 갈등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인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채널 거래 현황, 계약 프로세스 등을 각 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CJENM과 딜라이브를 협상 테

이블에 얽혀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사용 수수료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첨예하다. 앞서 CJ ENM은 유료방송사에 프로그램 사용료 15~30% 인상을 요구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인 딜라이브가 이에 응하지 않자 CJ ENM은 오는 17일 자사의 채널 13개를 공급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200만명에 달하는 딜라이브 가입자들이 '블랙아웃(채널 송출 중단)'으로 시청권이 침해될 위기에 놓인 셈이다. 딜라이브 측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미디어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자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무리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특히 딜라이브는 CJ오쇼핑 송출 수수료 미납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콘텐츠 중심 재편...과도기 놓인 유료방송 시장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는 양사의 개별 협상문제일 수 있지만, 이는 최근 콘텐츠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 단계에 놓인 유료방송 시장의 뿌리 깊은 갈등이란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CJ ENM 측은 지난 5년간 프로그램 사용료가 동결됐는데 주 콘텐츠 제작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SO와 3년 단위로 재송신료 재계약이 이뤄져 왔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은 IPTV, OTT 등의 등장으로 기성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면에 계속>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社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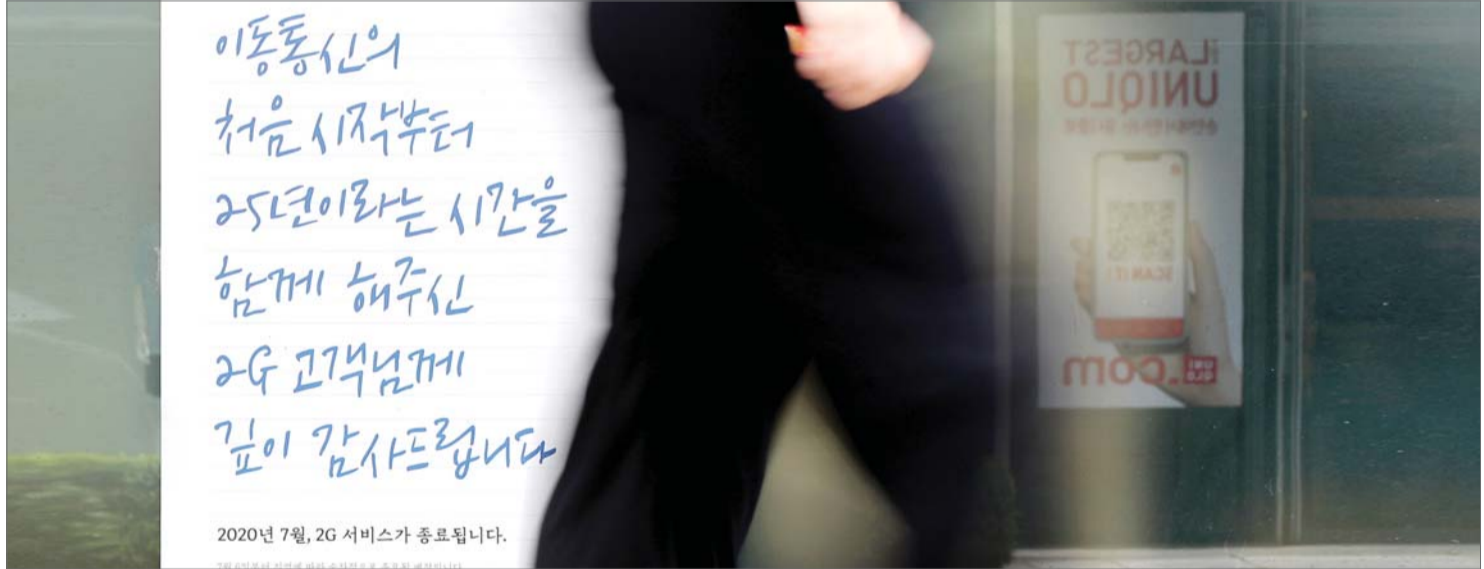


메트로미디어 '2020 100세 플러스 포럼'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15일(수) '2020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고령화시대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와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국내의 경제전망' 기초강연과 '재테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부동산 투자전략 등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국내외 경제전망을 비롯해 '가치투자'로 유명한 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부동산 투자전략을 제시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리츠운용 전문가인 남궁 훈 신한리츠운용 대표 등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행사명 : 2020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 주 제 : 고령화시대 리스크관리와 재테크
- 일 시 : 7월 15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40~14:00)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분증 미지참 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2020년 7월, 2G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011과 017 등으로 시작하는 SK텔레콤의 2G 이동통신 서비스의 순차 종료가 시작된 6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매장에 서비스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강원도, 경상도, 세종시,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광역시 제외)를 시작으로 13일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20일은 경기·인천, 그리고 27일은 서울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산 '해양모빌리티' 등 7곳 3차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420억 전용펀드로 전폭 지원 이번엔 7곳의 특구가 추가로 지정됨에 특구기간인 2024년까지 누릴 효과는 매출 1조5000억원, 고용 4390명, 기업유치 174곳이 각각 기대된다. 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12조6000억원의 매출, 5만7374명의 고용, 1544개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시·도의 미래전략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접목시켜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직전까지 지정한 14개 특구에는 27009억원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100개 기업이 특구 내로 새로 이전하는 등 지역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계능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융합프)이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14곳에 이어 규제자유특구는 총 2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만들어 필요 지역과 기업에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인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의 실증사업도 추가됐다. /김승호 기자 bada@

三電, 반도체 효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 전망치 7조 넘어 하이닉스도 1조 회복 기대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영업이익 7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닝 서프라이즈(깜짝실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실적방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 또다름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

〈삼성 2분기 실적 전망〉 (단위: 원)

증권사	영업이익 추정치	목표주가
하이투자	7조8000억	6.7만
IBK투자	7조622억	6.5만
현대차	7조5000억	6.4만
KTB투자	7조4000억	6.7만
신영	7조3700억	6만
대신	7조600억	6.8만

도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7일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이번 실적은 반도체 호황과 함께 디스플레이 주요 고객사의 보상금 등 일회성 수익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7조원을 넘어서는 성적표를 내놓을 전망이다. 7월 이후 증권업계에서 낸 삼성전자 투자보고서에 따르면 6개 증권사가 모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조원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7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가장 높은 추정치를 내놨다. 또 IBK투자증권은 7조6220억원, 현대차증권은 7조5000억원을 예상했다. 이번 삼성전자의 호실적 배경은 반도체다. 코로나19로 서버 증설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 것이다. <3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